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의 사상체질과 1회 유축한 모유량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우신향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우신향 한방병원 침구과, ***우신향 한방병원 내과,
****우신향 한방병원 사상체질과,*****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이용현*, 송호림*, 배경연*, 정재중*, 유상민**,
황진우***, 최인호****, 육상숙*****, 임은미*****

ABSTRACT

A Study on Breast milk volume of Wome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Lee Yong-Hyun^{*}, Song Ho-Lim^{*}, Bae Kyeong-Yeon^{*},
Jung Jae-Joong^{*}, Yoo Sang-Min^{**}, Hwang Jin-Woo^{***},
Choi In-Ho^{****}, Yuk Sang-Suk^{*****}, Lim Eun-Mee^{*****}

^{*}Dept. of OB & GY,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Dept. of Internal Medicine,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oshinhyang Oriental Hospital

^{*****}Dept. of OB & 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Purpose : Although the breast milk is the very important physiological function to women, there is no previous study on the breast milk volume of wome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breast milk volume patter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This study investigated 109 breast feeding women who were treated by S postpartum care center from March 2005 to November 2005. The result of survey was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postpartum pattern and QSCC II.

Results : The results of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showed that 53 women in childbirth of 109 were classified into Soeumin(48.6%), 27 as Taeumin(24.8%) and 29 as Soyangin(26.6%). Mean milk volume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showed statistically no difference between Soeumin and Taeumin, but mean milk volume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showed statistically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yangin and Soeumin, Soyangin and Taeumin.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lk volume of Soyangin is much larger than that of Soeumin and Taeumin.

Key Words : Postpartum, Milk volume, Sasang Constitution

I. 緒 論

산후에는 임신과 분만에 의해 야기되었던 모체의 성기 및 해부기능의 변화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하여 비임신기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기간을 산욕기라 하고^{1,2)} 대략 6~8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신생아의 수유 및 모성의 역할과 전 가족의 조화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임신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도록 돕는 행위를 산후관리라 한다³⁾. 한의학에서는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⁴⁾에서 처음으로 산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래 宋代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⁵⁾과 《景岳全書》⁶⁾에서 산후 100일간을 산후조리기간으로 언급하고 있다.

모유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분만 후 2~3일부터 분비되기 시작하여 영아의 월령에 따른 성장요구에 따라 생산된다⁷⁾. 모유수유는 아기의 성장과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수유방법으로써 아기 뿐 아니라 산모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다⁸⁾. 모유수유는 아기에 영양학적, 면역학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모아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산모에게는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자궁수축을 돕고, 자궁암이나 유방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 발생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9,10)}.

한편 체질이란 각 개인이 가진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특징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써, 선천적 유전인자와 후천적 환경요소에 의하여 형성된 개개인이 지니는 유형적 특징이다.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는 사상인 변증

의 기준으로 정신적인 심성과 육체적인 체형 그리고 생리적 체질증 및 병리적인 체질병증으로 크게 구분하고, 체질적 특성에 따라 사상인의 臟腑性理가 서로 달라 그 운용방법에서 서로 陰陽升降緩速에 대한 차이로 인해 사상인의 고유한 생리체계와 병리 및 운영약리가 따로 있게 되며, 각 체질에 따라서 外貌, 內心, 性情 뿐만 아니라 체내의 五臟六腑의 구조와 기능 또는 정신 상태나 氣質 등도 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 질병이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¹⁵⁾. 《東醫壽世保元》에는 체질에 따른 모유량의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모유가 여성의 생리·병리에 관계된 지표중의 하나이므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모유량에 관한 연구로는 이¹⁶⁾의 모유량 부족군과 충분군에 대한 비교 연구와 설 등¹⁷⁾의 모유영양아의 수유기간별 모유섭취량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상의학과 관련하여 각 체질별 모유분비량을 통계학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산후조리원에서 모유수유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사상체질별 모유량을 비교하기 위해 산모들의 모유량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상체질을 분류하고 체질별 모유분비량을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출산 후에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S산후조리센터에 입원한 산모 중 선천적 결함이나 질병이 없고, 임신전 기간

과 분만 및 산욕기에 산과적 합병증이 없는 산모, 초산인 산모, 자연분만 후 산욕 3일을 넘기지 않고 입원한 산모, 재태 기간이 38~42주로서 신생아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산모, 분만 후 모유수유를 시도하였고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유수유를 계획한 산모 및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156명이 참가하였으며 설문지로 체질검사를 시행하여 사상 체질판별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1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입원시(산후 2~3일) 직접 논문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상체질진단 설문지를 작성하고 산모의 신장과 체중,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산후조리센터 입원 후 2주째의 모유분비량을 측정하였고 퇴원시 산모와 신생아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3. 연구방법

1) 체질검사

대한사상의학회에서 공인된¹⁸⁾ 자기보고형 설문지 QSCC II를 이용하였다.

2) BMI 측정 방법

산모의 신장과 입원 2주째(산후 16~17일)의 체중을 이용하여 BMI값을 산출하였다.

3) 모유량 측정 방법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산후조리센터에서 산모들에게 유방 관리법, 유축 및 수유 요령을 숙지하도록 교

육하였고 입원 후 12, 13, 14일에 하루 1회씩 아침 기상후 가슴에 통증이 있을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유축기(스펙트라, 유진메디케어, 용인, 한국)를 이용하여 양측 유방의 모유를 유축하도록 하여 그 량을 기록하였다.

4) 모유량 만족도 조사

산모의 모유량에 대한 만족도는 부족, 보통, 충분 세 가지 문항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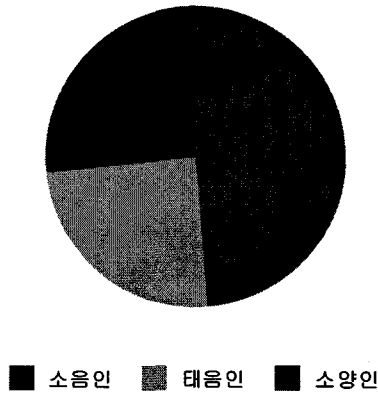
수집한 데이터는 윈도우용 SPSS for window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를 사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중변화 유의성과 신생아의 성별에 따른 유의성은 T-test로, 체질에 따른 BMI 유의성은 ANOVA로, 체질간의 BMI 유의성과 체질에 따른 유의성은 Post Hoc Tests로, 나머지 유의성은 Correlations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結 果

Table 1. 일반적 특성

		Mean±SD
산모 연령(세)		30.26±2.06
산모 신장(cm)		161.6±4.5
산모 체중(kg)	임신전	53.56±6.82
	만삭시	66.13±7.89
	입원 2주	59.51±7.42
산모BMI (kg/m ²)	입원 2주	22.73±2.36
	신생아체중	
(kg)	출생시	3.38±0.41
	입원시	3.22±0.43
	입원 2주	3.69±0.46
모유분비량(ml)	입원 2주	115.63±49.64

Fig. 1. 산모 체질



1. 산모 체질

QSCC II를 이용하여 체질을 분류한 결과 소음인은 53명(48.6%), 태음인은 27명(24.8%), 소양인은 29명(26.6%)을 차지하였고 태양인은 없었다(Fig. 1).

2. 산모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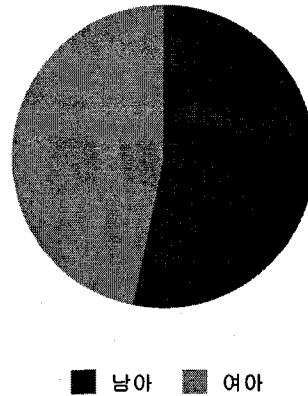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는 30세 미만이 41명(37.6%), 30세 이상이 68명(62.4%)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0.26±2.06세였다(Table 1). 연령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모유량은 감소하는 -28.2%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산모의 신장

신장별 분포는 155cm 이하는 8명(7.3%), 156~160cm는 36명(33%), 161~165cm는 39명(35.8%), 165cm 이상은 26명(23.8%)을 차지하였고 평균 신장은 161.6±4.5cm이었다(Table 1).

4. 산모의 체중

Fig. 2. 신생아 성별



1) 임신전 체중

임신전 체중은 42kg~49kg가 30명(27.5%), 50kg~59kg가 60명(55.0%), 60kg~69kg가 16명(14.7%), 70kg~76kg가 3명(2.8%)을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53.56±6.82kg이었다(Table 1).

2) 만삭시 체중

만삭시 체중은 51~59kg가 17명(15.6%), 60kg~69kg가 62명(56.9%), 70kg~79kg가 23명(21.1%), 80kg~86kg가 7명(6.4%)을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66.13±7.89kg이었다(Table 1).

3) 입원 2주 체중

입원 14일째(산후 16~17일) 체중은 42kg~49kg가 9명(8.3%), 50kg~59kg가 53명(48.6%), 60kg~69kg가 36명(33.0%), 70kg~77kg가 11명(10.1%)을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59.51±7.42kg이었다(Table 1).

4) 임신전과 만삭의 체중변화

임신전에서 만삭까지의 체중변화는

평균 체중변화가 $12.57 \pm 3.10\text{kg}$ 이었고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만삭과 입원 2주의 체중변화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는 평균 체중변화가 $6.62 \pm 2.06\text{kg}$ 이었고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체중변화가 증가할수록 모유량은 증가하는 20.6%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5. 산모의 체질량지수

산후조리센터 입원 14일째 BMI(체질량지수)는 저체중은 3명(2.7%), 정상체중은 55명(50.5%), 과체중은 36명(33.0%), 비만은 15명(13.8%)를 차지하였고 평균 BMI는 $22.73 \pm 2.36\text{kg}/\text{m}^2$ 이었다(Table 1). BMI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신생아 성별

성별 분포는 남아는 58명(53.2%), 여아는 51명(46.8%)를 차지하였다(Fig. 2). 성별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신생아 체중

1) 출생시 체중

출생시 체중은 $2.6\text{kg} \sim 3.0\text{kg}$ 이 29명(26.6%), $3.1\text{kg} \sim 3.5\text{kg}$ 이 45명(41.3%), $3.6\text{kg} \sim 4.0\text{kg}$ 이 32명(29.4%), $4.1\text{kg} \sim 4.8\text{kg}$ 이 3명(2.7%)를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3.38 \pm 0.41\text{kg}$ 이었다(Table 1).

2) 입원시 신생아 체중

입원시(산후 2~3일) 체중은 $2.5\text{kg} \sim 3.0\text{kg}$ 이 39명(35.8%), $3.1\text{kg} \sim 3.5\text{kg}$ 이 47명(43.1%), $3.6\text{kg} \sim 4.0\text{kg}$ 이 19명(17.4%), $4.1\text{kg} \sim 4.7\text{kg}$ 이 4명(3.7%)를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3.22 \pm 0.43\text{kg}$ 이었다(Table 1).

3) 입원 2주 후 체중

입원 14일째 신생아 체중은 $2.7\text{kg} \sim 3.0\text{kg}$ 이 7명(6.4%), $3.1\text{kg} \sim 3.5\text{kg}$ 이 39명(35.8%), $3.6\text{kg} \sim 4.0\text{kg}$ 이 36명(33.0%), $4.1\text{kg} \sim 4.5\text{kg}$ 이 24명(22.0%), $5.1\text{kg} \sim 5.2\text{kg}$ 이 3명(2.8%)을 차지하였고 평균 체중은 $3.69 \pm 0.46\text{kg}$ 이었다(Table 1). 산후조리센터 입원 2주 체중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출생시와 입원시 체중변화

출생에서 입원까지의 체중변화는 평균 체중변화가 $0.15 \pm 0.01\text{kg}$ 이었고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입원시와 입원 2주의 체중변화

입원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는 평균 체중변화가 $0.47 \pm 0.22\text{kg}$ 이었고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원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산모의 모유량

산후조리센터 입원 후 12일, 13일, 14일 삼일 동안 하루 1회 유축한 평균 모유량은 70ml 이하가 18명(16.5%), 71ml~100ml가 30명(27.5%), 101ml~130ml가 24명(22.0%), 131ml~160ml가 21명(19.3%), 161ml 이상은 16명(14.7%)이었

고 평균 모유량은 115.63±49.64ml로 최소 31.67ml, 최고 248.33ml이었다(Table 1).

9. 체질과 BMI와의 비교

체질에 따른 BMI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Table 2) 소음인

<소양인<태음인 순으로 BMI가 나타나며, 소음인의 평균 BMI는 21.43kg/m²으로 정상체중에 속하며 소양인도 22.65kg/m²로 정상체중에 속하나 태음인의 평균 BMI는 25.39kg/m²로 비만체중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체질에 따른 BMI의 유의성

	Sum of Squares	ANOVA			Sig.
		df	Mean Squares	F	
집단간	281.915	2	140.958	46.811	.000
집단내	319.189	106	3.011		
합	601.104	108			

Table 3. 체질에 따른 BMI의 차이

(I)체질	(J)체질	Post Hoc Tests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소음인	태음인	-3.968*	.410	.000
	소양인	-1.227*	.401	.003
태음인	소음인	3.968*	.410	.000
	소양인	2.741*	.464	.000
소양인	소음인	1.227*	.401	.003
	태음인	-2.741*	.464	.000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10. 체질과 모유량과의 비교

체질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소음인은 99.65±36.70ml, 태음인은 98.15±38.36ml, 소양인은 161.09±52.16ml로 Oneway ANOVA Tests 분석에 의해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Table 4), 이에 어

면 체질 간에 유의차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Post Hoc Tests 분석을 사용한 결과 소음인과 태음인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소양인과 소음인간, 소양인과 태음인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 5).

Table 4. 체질에 따른 모유량의 유의성

		ANOVA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Sig.
평균모유량	집단간	81715.67	2	40857.837	23.481	.000
	집단내	184444.3	106	1740.040		
	합	266159.9	108			

Table 5. 체질에 따른 모유량의 차이

		Post Hoc Tests				
		(I)체질	(J)체질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평균 모유량	소음인	태음인		1.506	9.863	.879
		소양인		-61.438*	9.635	.000
	태음인	소음인		-1.506	9.863	.879
		소양인		-62.944*	11.156	.000
	소양인	소음인		61.438*	9.635	.000
		태음인		62.944*	11.156	.000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5 level

IV. 考 察

양방에서 대략 분만직후부터 6~8주 정도의 기간을 산욕기라 하여 모체의 성기와 해부기능의 변화가 복구되는 시기를 절대안정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¹⁾, 한의학에서는 《婦人良方大全》 등^{5,19-21)}에서 “100일 이내에는 언어나 칠정, 추위, 더위, 머리감는 것을 삼간다. 만약 기혈이 허약하면 날짜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산모의 건강과 영양상태 회복을 위한 시기로 100일을 제시하고 있다.

유방의 발육과 비대 그리고 모유의 분비 등은 여러 호르몬의 복합된 작용에다 내분비의 조절로 성립되고 있다. 산후에 유방마사지나 수유를 하게 되면, 유방 및 유두의 신경자극이 제 4, 5, 6

흉추의 감각신경근을 따라 시상하부에 전달되고 시상하부의 자극은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을 자극한다. 전엽이 자극되면 prolactin의 분비증가로 prolactin이 활성화되면서 유방의 乳胞에서 여러 성분을 합성해서 유즙을 생성하게 되고, 후엽이 자극되면 oxytocin이 분비되면서 자궁과 유방의 평활근 등을 수축시키고 유선의 근상피세포를 수축시킴으로써 유즙배출을 촉진한다. 한편 유즙의 분비기전에는 신경성 기전도 반사적으로 관여된다. 이는 아기의 울음소리나 아기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유즙분비가 촉진되고 긴장이나 공포, 우울, 불안 등이 있게 되면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이다²²⁾.

초유분비후 정상적인 유즙분비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며칠간은 유방을 잘 마사지한 후 신생아의 빠는 행위가 있어

야 한다. 신생아가 흡인을 하면 할수록 유즙생산은 자극되고 유즙분비량은 늘어나게 되는데, 유즙분비는 요구와 공급의 기초 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산모의 식이, 휴식, 활동량, 정서적 만족도 등 여러 요인이 유즙분비에 영향을 준다¹⁶⁾.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유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의해서 모유량이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이라 하여, 인간 개체의 차등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여 네 체질의 체질유형을 주장하여 체질에 따라 身的 요소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心的 요소로 性質과 材幹, 恒心, 心慾 등 생리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다르므로 치료방법 및 평소 건강유지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13,15)}. 임상에서는 태음인은 肝大肺少하여 허리가 발달하고 소양인은 脾大腎少하여 가슴이 발달하고 소음인은 腎大脾少하여 상체가 빈약하다고 분석하고 있고 심 등²³⁾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설 등²⁴⁾의 모유분비량에 대한 조사와 정²⁵⁾의 모유량 부족에 대한 조사 등이 있지만 문헌에는 체질감별이나 각 체질별 모유량 차이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실정이라,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의 사상체질별 모유량을 비교 분석하여 체질별 모유량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는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 S산후조리센터에서 2주 이상 산후조리를 실시하는 산모 중 자연분만으로 초산을 한 산모 156명을 대상으로 입원당일에 QSCC II를 이용하여 산모의 사상체질을 검사하여 유효성을 인정받은 109명을 선발하였다. 이 후 산모의 키와 입퇴원시의 체중, 신생아의 입퇴원시의 체중, 산모의 12일, 13일, 14일 평균 모유분비량 등을 조사하여 대비, 분석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산모들이 2주에서 3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²⁶⁾ 100일간의 한방적인 산후조리기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지 2주가 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자연분만을 한 산모로 한정지은 이유는 자연분만의 경우 보통 출산 2일에서 3일 후 내원하는데 반해, 제왕절개를 한 환자는 대부분 실밥을 제거하고 오므로 거의 출산일로부터 5일에서 7일이 경과되어 온다. 따라서 제왕절개의 경우 체중의 자연적 감소가 더욱 진행된 상태이고 모유분비량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자연분만 산모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초산을 한 산모로 한정지은 이유는 경산에 비해 모유수유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체질별로 모유분비량을 알아보는 데 있어 더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체질별 분포는 소음인은 53명(48.6%), 태음인은 27명(24.8%), 소양인은 29명(26.6%), 태양인 0명(0.0%)으로 소음인이 가장 많았

다. 《東醫壽世保元·辨證論》에 의하면 사상인의 분포비율은 만명 기준으로 소음인은 2000명, 태음인은 5000명, 소양인은 3000명, 태양인은 3, 4~10여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과 태음인의 비율이 역전된 경향을 보였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30.26 ± 2.06 세였고 연령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성이 있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유량이 감소하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균 신장은 161.6 ± 4.5 cm이었고 임신전 평균 체중은 53.56 ± 6.82 kg, 만삭시 평균 체중은 66.13 ± 7.89 kg, 입원 2주 평균 체중은 59.51 ± 7.42 kg이었다. 임신전에서 만삭까지의 평균 체중변화는 12.57 ± 3.10 kg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평균 체중변화는 6.62 ± 2.06 kg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성이 있었으나 체중변화가 증가할수록 모유량은 증가하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평균 BMI는 22.73 ± 2.36 kg/m²이었고 BMI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산모의 연령,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 BMI에 따른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상관관계가 적었다.

신생아 성별은 남아가 58명(53.2%), 여아가 51명(46.8%)이었고 성별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출생시 평균 체중은 3.38 ± 0.41 kg, 입원시 평균 체중은 3.22 ± 0.43 kg, 입원 2주 평균 체중은 3.69 ± 0.46 kg이었다. 입원 2주 체중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출생에서 입원까지의 평균 체중변화는 생리적 탈수, 섭취부족, 태변 등으로 0.15 ± 0.01 kg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입원에서 입원 2주까지의 평균 체중변화는 0.47 ± 0.22 kg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입원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신생아의 성별, 입원 2주째 체중, 입원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모유분비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질에 따른 산모의 BMI는 유의성이 있어 소음인 < 소양인 < 태음인 순으로 BMI가 나타났으며 소음인과 소양인의 평균 BMI는 정상체중이었으나, 태음인의 평균 BMI는 비만체중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센터 입원 후 12일, 13일, 14일 삼일 동안 하루 한번 유축한 평균 모유량은 115.63 ± 49.64 ml로 최소 평균 모유량은 31.37ml, 최고 평균 모유량은 248.33ml이었다. 체질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소음인은 99.65 ± 36.70 ml, 태음인은 98.15 ± 38.36 ml, 소양인은 161.09 ± 52.16 ml로 Oneway ANOVA Tests 분석에 의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에 어떤 체질 간에 유의차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Post Hoc Tests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소음인과 태음인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소양인과 소음인 간, 소양인과 태음인 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 다른 요인들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상관관계가 적었으나 체질에 따른 평균 모유분비량은 유의성이

있게 다른 체질에 비해 소양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가슴이 발달하여 모유분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산모의 모유분비량을 조사한 목적에 부합되는 바이다,

연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연구 기간이 2주로 짧았던 점, 경산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점, 태양인이 없었다는 점 등인데 추후 이러한 점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V. 結 論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S산후조리센터에 2주 이상 입원하여 산후조리를 실시한, 초산이면서 자연분만을 한 산모 109명을 대상으로 연령, 신장, 체중, 신생아의 성별, 신생아의 체중, 산모의 모유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모의 BMI, 신생아의 성별, 신생아의 입원 2주째 체중, 신생아의 입원 2주 동안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산모의 연령, 산모의 만삭에서 입원 2주까지의 체중변화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유의성은 있었지만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체질에 따른 산모의 BMI는 유의성이 있었고 소음인(정상) < 소양인(정상) < 태음인(비만) 순으로 나타났다.
4. 체질에 따른 평균 모유량은 태음인과 소음인간은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소양인과 소음인간, 소양인과 태음인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있

었다.

이상의 결과로 체질에 따른 모유 분비량은 소음인과 태음인보다 소양인에서 모유분비량이 유의성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투 고 일 : 2006년 04월 28일

□ 심 사 일 : 2006년 05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5월 09일

參 考 文 獻

1.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 1990;98-108.
2. 홍성봉. 산후생리 및 합병증. 대한가정의학회지. 1985;6(5):1-4.
3. 이용호, 이태균. 산후관리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 13(1):501-517.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대성문화사, 1992;71-72.
5.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서울: 정담출판사, 1993;1-3.
6.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860-864.
7. 박은옥 등. 초산모 영아의 월령별 모유수유양상 및 모유수유건강행위실천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1;7(3):382-392.
8. 박인숙, 노은호. 주부들의 모유수유 인식에 따른 실태분석.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002;10:29-54.
9. 대한간호협회. 모유수유실천의 중요성과 대책. 대한간호. 1996;35(2):25-34.
10. 홍창의. 소아과진료. 서울: 고려의학, 2003;40-41.

11. 이태호 등. 실제적 동의사상진료의 비결. 서울: 행림서원출판, 1961;31-47.
12. 李濟馬.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92;79-145, 377-392.
13. 송일병 등.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34-36, 44-48, 59-87, 93-99, 119-140.
14.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사상사, 1993;50-89.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86;137-142.
16. 이성희. 모유량 부족군과 모유량 충분군 사이의 모유량 부족정도 및 모유량 증가행위 비교. 최신의학. 1998;41(9):59-69.
17. 설민영, 김을상, 금혜경. 모유영양아의 수유기간별 모유섭취량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93;26(4):414-422.
18. 이연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대한 타당성 연구-각 체질집단의 군집별 Profile 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8(1):247-294.
19. 武之望. 濟陰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559-560.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여강출판사, 1994;2325.
21. 黃度淵. 醫宗損益(下). 서울: 여강출판사, 1993;324-325.
22. 배종국. 한방유방학. 서울: 정담출판사, 2005;18-19.
23. 심부자, 서추연, 이소영. 사상체질에 근거한 체질별 체형특성과 인체계측을 통한 유형별 체형특성과의 비교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004;8(2):26-41.
24. 설민영, 김을상, 금혜경. 수유 첫 6개월간 기간별 수유부의 모유분비량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92;26(4):405-413.
25. 정은순. 모유량 부족증후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병원학술지. 2002;12:605-618.
26. 허지원, 김성란. 산후조리의 실태 및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1):409-423.